동아시아 3개국 남성의 가사참가 관련 가설에 대한 실증적 검토

박지선¹ · 박천만² · 코야마 요시노리³ · 김정숙⁴ · 윤정수⁵
키리노 마사후미⁶ · 나카지마 가즈오⁶

료비개호연구소¹, 계명대학교 공중보건학과², 오카야마현립대 대학원 보건복지학연구과³
경상남도청⁴, 바이카여자대학 현대인간학부⁵, 오카야마현립대학 보건복지학부⁶

= Abstract =

The Substantial Examination of the Hypothesis Related to Promotion and a Disincentive of the Male's Household Participation in Three East Asian Countries

Ji-Sun Park¹ · Chun-Man Park² · Yoshinori Koyama³ · Jung-Suk Kim⁴
Jung-Soo Yoon⁵ · Masafumi Kirino⁶ · Kazuo Nakajima⁶

Ryobi Research Institute of Well-being for Elderly¹

Department of Public Health, Keimyung University²

Graduate school of Health and Welfare, Okayama Prefectural University³
Gyeongsanam-Do Provincial Office⁴

Faculty of Contemporary Human Studies, Baika Women's University⁵

Faculty of Health and Welfare Science, Okayama Prefectural University⁶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ssess a comprehensive examination of five hypotheses related to promotion and a disincentive of the father's household participation in three East Asian Countries.

Method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1250 Korean household, 800 Chinese household, and 1000 Japanese household who send their children to a nursery. The questionnaire consisted to husband's age, income, education, number of children, age of youngest child, male's household participation, wife's age, income, education, whether or not living parents, male's home time, presence or absence occupation of wife, traditional values, sense of parent role. We designed the casual model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male's household participation and five hypotheses about household participation. Above model was examined by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e used the data from 259 Korean household, 153 Chinese household, and 240 Japanese household with no missing values on the variables.

Results: As a result, there were similar among three countries that 'Substitute hypothesis of resources' and 'An ideology hypothesis' were supported. On the other hand, it was confirmed that there are some differences not only common in promotion and a disincentive of male's household participation by the three countries with different social and cultural background.

Conclusions: In the future, it is desirable to validate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adding new variables and hypotheses. Also, it is suggesting the need to develop common supporting program and original supporting program based on social/cultural background aimed at promoting the male's household participation.

Key Words: father, participation in household, East Asia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서 론

유교문화권에 속한 한국, 중국, 일본은 전통적으로 성별역할구조가 분업화되어 왔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 후 한국과 일본에서는 전통적 가부장제와 자본주의 생산양식이 결합되면서 남성은 시장노동, 여성은 가사노동이라는 성별역할분업화가 지향되어 왔고, 이러한 경향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Tsuya, 2000). 또한 중국에서는 사회주의혁명 이후, 사회적 생산과 가사 및 육아는 남녀 공동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지만 현실적으로는 가사 및 육아수행이 여성에게 맡겨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An과 Kim, 2009). 일본에서 실시한 전국가정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맞벌이 세대의 남성의 가사 및 육아 수행분담률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으나, 구미 선진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일본 남성의 가사 및 육아 분담률은 낮은 상황이다(National Institute of Population and Social Security Research, 2006). 이는 한국이나 중국도 비슷한 상황이다. 한국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혼남성의 가정관리 및 육아 등에 사용하는 시간은 증가하는 경향에 있으나 기혼여성이 사용하는 시간과 비교하면 지극히 적은 상황이다(Statistics Korea, 2009). 또한 중국의 경우, 전국적으로 실시한 제2기 중국부녀사회지위샘플조사 결과, 1일 가사에 소비하는 시간의 전국 평균은 남성 93.1분, 여성 254.1분이었고, 가사분담률은 남성이 26.8%, 여성이 73.2%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가사에 참가하는 시간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All-China Women's Federation·National Bureau of Statistic, 2001). 그러나 사회구조 및 가족구성의 변화와 함께 여성의

사회참가가 급증하고 있는 것을 고려한다면, 많은 여성들이 일과 가정의 양립 속에서 다중역할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In, 2004). 이에 가정학과 사회학 분야의 연구들에서는 여성의 다중역할에 대한 부담감을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남성의 가정 내 역할의 중요성, 즉 남성의 적극적인 가사참가가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다(Ishii-Kuntz, 1997; Cho, 1997).

그동안 가족사회학, 경제학, 가계구조연구 등의 영역에서는 남성의 가사참가를 규정하는 요인에 대한 규명이 중요한 연구주제가 되어 왔다(Ishii-Kuntz, 1997; 1998; 2009). 그 중에서도 사회학 영역에서는 가사참가에 관한 가설, 즉 가정내수요(household demands) 가설, 상대적자원(relative resources) 가설, 대체자원(alternative resources) 가설, 시간적 여유(time availability) 가설, 젠더이데올로기(gender ideology) 가설 등을 실증적으로 검토해 왔다(Shelton과 John, 1996). Yoon 등(2010)의 연구에서는 일본 남성을 대상으로 위의 가설을 중심으로 관련 변수를 종합적으로 투입한 인과관계모형을 구축한 후, 통계학적 분석을 통해 어느 변수가 어느 정도 남성의 가사참가에 영향을 주고 있는가를 실증적으로 살펴봤다. 그러나 이 가설들을 종합적으로 검증하는데 있어서 국가 간에 어떠한 부분에 공통점과 차이점이 나타나는가에 대한 비교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동아시아에 속한 한국, 중국, 일본의 남성을 대상으로 가사참가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사회학 영역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남성의 가사참가에 관한 다섯가지 가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

연구 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한국, 중국, 일본의 영유아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세대를 대상으로 2009년 8월부터 약 3개월간 조사를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한국에서는 S시, Y시, C시의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1,250세대(S시: 어린이집 2개소, 250세대, Y시: 어린이집 2개소 400세대, C시: 어린이집 11개소, 600세대)를 무작위로 선정하였다. 중국에서는 Z성 H시의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800세대를 무작위로 선정하였다. 일본에서는 K현 C시와 O현 K시내 어린이집을 관할하고 있는 시의 담당과의 협력으로 어린이집 15개소를 이용하고 있는 1,000세대(C시: 어린이집 6개소, 500세대, K시: 어린이집 9개소, 500세대)를 무작위로 선정하였다. 설문조사원은 각 어린이집의 책임자로 하였다. 조사원은 설문지 및 개인정보보호 등에 대해 기재된 의뢰서를 각 세대에 배포하였고, 이에 동의를 한 세대가 조사에 참가하였다.

설문지는 한국이 739세대(회수율 59.1%), 중국이 399세대(회수율 49.9%), 일본이 412세대(회수율 51.4%)로부터 회수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회수된 데이터 중 분석에 필요한 변수에 모두 응답한 한국 259세대, 중국 153세대, 일본 240세대의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2. 측정도구

분석을 위해 남성의 가사참가와 가사참가에 관한 5가지 가설에 따른 각 변수를 발췌하였다. 남성의 가사참가는 아버지가 응답한 설문지에서, 부부간 득점차에 대한 변수의 경우에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응답한 설문지에서 각각 발췌하였다. 가사참가에 관한 5가지 가설의 구체적인 변수로는 1) 가정내수요가설: 자녀수와 막내자녀의 연령, 2) 상대적자원가설: 부부의 연령차,

부부의 학력차, 부부의 수입차, 3) 대체자원가설: 부모와의 동거 유무, 4) 시간적여유가설: 남성의 귀가시간, 여성의 직업유무, 5) 이데올로기가설: 전통적 가치관(부부의 득점차)와 부모역할관(부부의 득점차)으로 구성하였다.

이들 변수 가운데 남성의 가사참가 측정에는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가 실시한 제2회 전국가정동향조사에서 사용된 문항을 사용하였다(National Institute of Population and Social Security Research, 2000). 구체적으로는 시급한가의 여부에 따라 당장 수행하지 않고 뒤로 미뤄도 되는 지연가능가사(1. 쓰레기 버리기, 2. 방청소, 3. 세탁, 4. 욕실 청소)와 매일 거르지 않고, 수행해야 하는 지연불능가사(5. 장보기, 6. 식사준비, 7. 설거지)로 측정하였다(Morita와 Muramatsu, 2004). 응답 및 수량화는 0점:하지 않는다, 1점: 월1~2회 하고 있다, 2점: 주1~2회 하고 있다, 3점: 주3~4회 하고 있다, 4점: 매일/매회하고 있다의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전통적 가치관은 일본 통계수리연구소가 동아시아 가치관 국제비교조사에서 사용한 7문항을 사용하였다(Yoshino, 2005). 응답 및 수량화는 0점: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1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2점: 그렇게 생각한다, 3점: 매우 그렇게 생각한다의 4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남성의 부모역할관은 Aoki와 Iwatate (2005)가 개발한 부모역할공정감척도를 사용하였다. 응답 및 수량화는 0점: 다르다, 1점: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2점: 조금 그렇게 생각한다, 3점: 매우 그렇게 생각한다의 4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3. 자료 분석방법

통계분석에 있어서는 남성의 가사참가, 즉 지연가능가사와 지연불가능가사에 대한 참가빈도를 종속변수로 하고, 가사참가의 5가지 가설에 관한 변수를 독립변수로 한 인과관계모형을 구축한 후, 모형의 데이터에 대한 적합성 및 변수간 관련성을 구조방정식모형으로 분

석하였다. 독립변수 가운데 부모와의 동거유무에 관해서는 더미변수(동거: 1점, 비동거: 2점)로 처리하였다. 부부의 학력차와 수입차는 각 응답범주별로 득점화한 후 그 차이를 산출하였다. 예를 들어 학력의 경우, 중학교 졸업에 0점, 대학원 졸업에 5점을 부과하여 각각 남성에서 여성을 뺀 값으로 차이를 산출하였다. 다른 변수에 대해서는 합계점 등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모형의 검토에는 각 측정척도에 대한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인한 후, 이를 바탕으로 인과관계모형의 적합도 및 변수간 관련성을 검토하였다. 먼저 각 측정척도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위해 남성의 가사참가는 2요인 사교모형, 전통적 가치관과 부모역할관은 각각 1요인모형으로 설정하여 각 요인구조모형의 테이터에 대한 적합성을 확인적요인분석으로 검토하였다. 요인구조모형과 인과관계모형에 대한 적합성 판단지표로는 Comparative Fit Index (CFI)와 Root Mean Square Error Approximation (RMSEA)을 사용하였다. CFI는 일반적으로 0.90 이상, RMSEA는 0.08 이하이면 좋은 모형으로 판단한다(Yamamoto와 Onodera, 2001). 각 측정척도의 신뢰성은 크롬바흐 알파 신뢰성계수로 검토하였다.

각 경로계수의 유의성 검증은 검정통계량에 대한 절대값이 1.96 이상(유의수준 5%)이면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Peek, 2000). 분석에는 통계소프트 SPSS12.0J for Windows와 Amos5.0을 사용하였다.

성 적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등에 대한 분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분포는 Table 1과 같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먼저 한국의 경우, 남성의 평균연령은 35.9세(표준편차 3.9, 범위 25~48세), 부인의 평균연령은 33.6세(표준편차 3.4, 범위 25~44세)였다. 자녀수는 2명이 165세대(63.7%)로 가장 많았고, 막내자녀의 평균연령은 3.1세(표준편차 1.7, 범위 0~

7세)였다. 세대구성은 2세대 가족이 224세대(86.5%), 3세대 가족이 35세대(13.5%)였다. 다음으로 중국의 경우, 남성의 평균연령은 33.5세(표준편차 2.8, 범위 26~43세), 부인의 평균연령은 31.5세(표준편차 2.8, 범위 24~43세)였다. 자녀수는 1명이 143세대(93.5%)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막내자녀의 평균연령은 4.3세(표준편차 1.0, 범위 1~6세)였다. 세대구성은 2세대 가족이 57세대(37.3%), 3세대 가족이 96세대(62.7%)였다. 일본의 경우, 남성의 평균연령은 36.1세(표준편차 5.1, 범위 22~53세), 부인의 평균연령은 34.2세(표준편차 4.3, 범위 23~45세)였다. 자녀수는 2명이 115세대(47.9%)로 가장 많았고, 막내자녀의 평균연령은 2.5세(표준편차 1.7, 범위 0~6세)였다. 세대구성은 2세대 가족이 185세대(77.1%), 3세대 가족이 55세대(22.9%)로 나타났다. 한편, 남편의 가사참가에 대한 응답분포는 Table 2에 나타났다.

2. 각 측정척도의 타당성 및 신뢰성 검토

남성의 가사참가, 전통적 가치관, 부모역할관에 관한 측정척도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확인적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남편의 가사참가에 대한 모형의 적합도는 한중일 3개국 모두 통계학적인 허용수준을 충족시켰다(한국 CFI=0.975, RMSEA=0.062, 중국 CFI=0.959, RMSEA=0.087, 일본 CFI=0.945, RMSEA=0.084). 또한 전통적 가치관에 대한 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한 결과, 3개국 모두 통계학적인 허용수준을 충족시키고 있었다(한국 CFI=0.945, RMSEA=0.067, 이었고, 중국 CFI=0.952, RMSEA=0.077, 일본 CFI=0.902, RMSEA=0.077). 부모역할관에 대한 모형의 적합도 역시 대체로 통계학적인 허용수준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한국 CFI= 0.986, RMSEA=0.064, 중국 CFI=0.983, RMSEA=0.098, 일본 CFI=0.981, RMSEA=0.078).

다음으로 각 측정척도에 대한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해 크롬바흐 알파 신뢰성계수를 확인한 결과, 지연가

Table 1. The Characteristics of Subjects

		Korea (n=259)	China (n=153)	Japan (n=240)
Age	Male	35.9±3.9 (25~48)	33.5±2.8 (26~43)	36.1±5.1 (22~53)
	Wife	33.6±3.4 (25~44)	31.5±2.8 (24~43)	34.2±4.3 (23~45)
Age of the youngest child		3.1±1.7 (0~7)	4.3±1.0 (1~6)	2.5±1.7 (0~6)
Time to go home		19.3±1.4	17.5±0.9	19.5±1.7
		(17.0~23.5)	(17.0~22.3)	(17.0~24.0)
		n (%)	n (%)	n (%)
Number of children	One	61 (23.6)	143 (93.5)	66 (27.5)
	Two	165 (63.7)	10 (6.5)	115 (47.9)
	More than three	33 (12.7)	0 (0.0)	59 (24.6)
Household composition	Two-generation family	224 (86.5)	57 (37.3)	185 (77.1)
	Three-generation family	35 (13.5)	96 (62.7)	55 (22.9)
Educational background Male	Completed a graduate school	18 (6.9)	15 (9.8)	5 (2.1)
	Completed university	90 (34.7)	88 (57.5)	64 (26.7)
	Completed college	75 (29.0)	29 (19.0)	60 (25.0)
	Completed high school	74 (28.6)	16 (10.5)	94 (39.2)
	Completed middle school	1 (0.4)	5 (3.3)	17 (7.1)
	Completed elementary school	1 (0.4)	3 (2.0)	0 (0.0)
Wife	Completed a graduate school	9 (3.5)	86 (56.2)	0 (0.0)
	Completed university	65 (25.1)	38 (24.8)	50 (20.8)
	Completed college	86 (33.2)	18 (11.8)	108 (45.0)
	Completed high school	96 (37.1)	7 (4.6)	75 (31.3)
	Completed middle school	3 (1.2)	1 (0.7)	7 (2.9)
Job Male	Company employee	225 (86.9)	94 (61.4)	217 (90.4)
	Government employee	34 (13.1)	59 (38.6)	23 (9.6)
Wife	Company employee	53 (20.5)	65 (42.5)	72 (30.0)
	Government employee	27 (10.4)	23 (15.0)	24 (10.0)
	Self-employed	9 (3.5)	12 (7.8)	6 (2.5)
	Professional	16 (6.2)	25 (16.3)	28 (11.7)
	Part-time, arbeit	18 (6.9)	2 (1.3)	96 (40.0)
	Others	20 (7.7)	20 (13.1)	10 (4.2)
	Full-time housewife/Unemployed	116 (44.8)	6 (3.9)	4 (1.7)
Monthly income ¹⁾ Male	Less than 100 million Won	2 (0.8)	5 (1.9)	0 (0.0)
	Less than 100 million Won~ 200 million Won	70 (27.0)	51 (33.3)	18 (7.5)
	Less than 200 million Won~ 300 million Won	109 (42.1)	51 (33.3)	124 (51.7)
	Less than 300 million Won~ 400 million Won	58 (22.4)	26 (17.0)	75 (31.3)
	Less than 400 million Won~ 500 million Won	15 (5.8)	10 (6.5)	17 (7.1)
	500 million Won or more	6 (3.9)	9 (5.9)	6 (2.5)
	With no income	113 (43.6)	3 (2.0)	6 (2.5)
	Less than 100 million Won	36 (13.9)	20 (13.1)	96 (40.0)
Wife	Less than 100 million Won~ 200 million Won	53 (20.5)	78 (51.0)	80 (33.3)
	Less than 200 million Won~ 300 million Won	44 (17.0)	28 (18.3)	43 (17.9)
	Less than 300 million Won~ 400 million Won	8 (3.1)	6 (3.9)	15 (6.3)
	Less than 400 million Won~ 500 million Won	4 (1.5)	8 (5.2)	0 (0.0)
	500 million Won or more	1 (0.4)	10 (6.5)	0 (0.0)

¹⁾ In the case of China: With no income, Less than 2,000 Yuan, Less than 2,000~4,000 Yuan, Less than 4,000~6,000 Yuan, Less than 6,000~8,000 Yuan, Less than 8,000~10,000 Yuan, 1,000 Yuan or more, In the case of Japan: With no income, Less than 100,000 Yen, Less than 100,000~200,000 Yen, Less than 200,000~300,000 Yen, Less than 300,000~400,000 Yen, Less than 400,000~500,000 Yen, 500,000 Yen or more

Table 2. Response Distributions of Male's Household Participation

			n (%)				
Item		Naver	Once of twice a month	Once of twice a week	Three of four time a week	Everyday/ Always	
Housekeeping which can be delayed							
Xa1 Carrying out garbage	KOR	39 (15.1)	75 (29.0)	87 (33.6)	35 (13.5)	23 (8.9)	
	CHN	23 (15.0)	40 (26.1)	50 (32.7)	23 (15.0)	17 (11.1)	
	JPN	68 (28.3)	47 (19.6)	44 (18.3)	22 (9.2)	59 (24.6)	
Xa2 Cleaning of the room	KOR	38 (14.7)	102 (39.4)	94 (36.3)	17 (6.6)	8 (3.1)	
	CHN	51 (33.3)	57 (37.3)	34 (22.2)	6 (3.9)	5 (3.3)	
	JPN	69 (28.8)	96 (40.0)	60 (25.0)	7 (2.9)	8 (3.3)	
Xa3 Washing	KOR	120 (46.3)	63 (24.3)	66 (25.5)	9 (3.5)	1 (0.4)	
	CHN	83 (54.2)	37 (24.2)	19 (12.4)	8 (5.2)	6 (3.9)	
	JPN	121 (50.4)	45 (18.8)	39 (16.3)	16 (6.7)	19 (7.9)	
Xa4 Cleaning of a bathroom	KOR	103 (39.8)	105 (40.5)	43 (16.6)	5 (1.9)	3 (1.2)	
	CHN	78 (51.0)	42 (27.5)	22 (14.4)	5 (3.3)	6 (3.9)	
	JPN	61 (25.4)	59 (24.6)	64 (26.7)	23 (9.6)	33 (13.8)	
Housekeeping which cannot be delayed							
Xa5 Meal preparation	KOR	107 (41.3)	75 (29.0)	52 (20.1)	21 (8.1)	4 (1.5)	
	CHN	75 (49.0)	32 (20.9)	26 (17.0)	15 (9.8)	5 (3.3)	
	JPN	117 (48.8)	63 (26.3)	32 (13.3)	20 (8.3)	8 (3.3)	
Xa6 Shopping	KOR	52 (20.1)	95 (36.7)	97 (37.5)	10 (3.9)	5 (1.9)	
	CHN	9 (5.9)	62 (40.5)	63 (41.2)	16 (10.5)	3 (2.0)	
	JPN	56 (23.3)	82 (34.2)	80 (33.3)	12 (5.0)	10 (4.2)	
Xa7 Washing dishes	KOR	57 (22.0)	85 (32.8)	70 (27.0)	34 (13.1)	13 (5.0)	
	CHN	56 (23.3)	37 (24.2)	34 (22.2)	14 (9.2)	12 (7.8)	
	JPN	66 (27.5)	48 (20.0)	55 (22.9)	33 (13.8)	38 (15.8)	

능가사의 경우, 한국=0.74, 중국=0.79, 일본=0.70, 지연불능가사의 경우, 한국=0.71, 중국=0.57, 일본=0.60, 전통적 가치관의 경우, 한국=0.70, 중국=0.78, 일본=0.66, 부모역할관의 경우, 한국=0.86, 중국=0.91, 일본=0.86으로 나타났다.

각 측정척도의 평균치를 산출한 결과, 먼저 지연가능가사의 경우, 한국이 평균 4.9점, 표준편차 2.9, 중국이 평균 4.5점, 표준편차 3.4, 일본이 평균 5.6점, 표준편차 3.8이었고, 지연불능가사의 경우, 한국이 평균 3.8점, 표준편차 2.4, 중국이 평균 3.9점, 표준편차 2.4, 일본이 평균 3.9점, 표준편차 2.7로 나타났다. 전통적 가치관의 경우, 한국이 평균 11.9점, 표준편차 3.1, 중국이 평균 10.3점, 표준편차 3.8, 일본이 평균 9.5점, 표준편차 2.6이었다. 부모역할관의 경우, 한국이 평균 14.4점, 표준편차 3.0, 중국이 평균 16.2점, 표준편차 2.6, 일본이 평균 12.2점, 표준편차 3.2로 나타났다.

3. 남성의 가사참가에 관한 인과관계모형의 적합성 및 변수간의 관련성 검토

남성의 가사참가에 관한 인과관계모형의 데이터에 대한 적합성 및 변수간의 관련성을 검토한 결과, 먼저 한국 데이터에 대한 모형의 적합도는 CFI=0.955, RMSEA=0.047로 통계학적인 허용수준을 충족시키고 있었다. 남성의 지연가능가사에 대해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경로계수는 막내자녀연령($\beta=-0.223$), 남편의 귀가시간($\beta=-0.177$), 부인의 직업유무($\beta=0.317$)로 나타났다. 남성의 지연불능가사에 대해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경로계수는 막내자녀연령($\beta=-0.149$), 부부의 학력차($\beta=0.125$), 세대구성($\beta=-0.154$), 남편의 귀가시간($\beta=-0.281$), 부인의 직업유무($\beta=0.377$), 전통적 가치관($\beta=-0.171$), 부모역할관($\beta=0.146$)으로 나타났다(Fig. 1).

Fig. 1. Causal model of Korean male's household participation (standardized coefficients).

Fig. 2. Causal model of Chinese male's household participation (standardized coefficients).

다음으로 중국 데이터에 대한 모형의 적합도는 $CFI=0.949$, $RMSEA=0.044$ 로 통계학적인 허용수준을 충족시키고 있었다. 남성의 지연가능가사에 대해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경로계수는 부부의 수입차($\beta=-0.208$),

세대구성($\beta=-0.210$), 부모역할관($\beta=0.310$)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성의 지연불능가사에 관하여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경로계수는 세대구성($\beta=-0.229$)이었다(Fig. 2).

마지막으로 일본 데이터에 대한 모형의 적합도는 CFI=0.884, RMSEA=0.062로 통계학적인 허용수준을 충족시키고 있었다. 남성의 지연가능가사에 대해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경로계수는 막내자녀연령($\beta = -0.168$), 부부의 수입차($\beta = -0.229$), 세대구성($\beta = -0.400$), 전통적 가치관($\beta = -0.174$), 부모역할관($\beta = 0.137$)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성의 지연불능가사에 관하여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경로계수는 부부의 수입차($\beta = -0.207$)와 세대구성($\beta = -0.215$)으로 나타났다(Fig. 3).

고 찰

본 연구에서는 동아시아 3개국, 한국, 중국, 일본 남성을 대상으로 가사참가에 관한 5가지 가설에 대한 인과관계모형을 구축한 후, 모형의 데이터에 대한 적합성 및 변수간 관련성에 대해 실증적으로 검토하였다.

그 결과, 첫째, 한중일 3개국에서 나타난 공통적인 결과로, 3개국 모두 대체자원가설(세대구성)과 젠더이데올로기가설(부모역할관)이 남편의 가사참가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구체

적으로는 세대구성의 경우, 중국과 일본 데이터에서는 지연가능가사와 지연불능가사 모두에, 한국 데이터에서는 지연불능가사에 유의한 관계성을 보였다. 또한 3개국 모두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세대가 남편의 가사참가 빈도가 낮은 경향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세대구성을 반영하고 있는 대체자원가설은 가사에 대한 대체인력이 많을수록, 남성의 가사참가 빈도가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이 가설이 지지되었다. 또한 중국과 일본 데이터에서는 부모역할관과 지연가능가사가, 한국 데이터에서는 부모역할관과 지연불능가사가 유의한 관계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3개국 모두 부모역할관이 높을수록, 남편의 가사참가 빈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젠더이데올로기가설에 대한 기존의 연구결과(15)18)에서는 가사참가와와의 관계에 있어 상반된 결과를 보고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젠더이데올로기가설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남편의 젠더에 대한 가치관은 가사참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젠더이데올로기가설에 포함된 또 다른 변수로서 전통적 가치관을 투입하였는데 그 결과, 한국 데이터에서는 지연불능가사에, 일본

Fig. 3. Causal model of Japanese male's household participation (standardized coefficients).

데이터에서는 지연가능가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나 중국 데이터에서는 두 변수간의 관계성이 유의하지 않았다. 많은 연구들에서 남성의 전통적 가치관이 높을수록 가사참가빈도는 낮아지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Iwai와 Inaba, 2000; Ishii-Kuntz, 2004). 한편으로는 남성 뿐만 아니라 여성이 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을수록 남성의 가사참가 빈도가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 이에 대해서는 추후 계속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Greenstein, 1996).

둘째, 본 연구에서는 가정내수요가설에 관한 변수인 자녀수가 3개국 모두 가사참가와 유의한 관련성을 나타내지 않아 가설이 기각되었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자녀수가 많을수록, 가정내 가사분담의 필요성이 증대되어 남성의 가사참가빈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되어 왔다(Matsuda, 2006; Morita와 Muramatsu, 2004). 그러나 이들 연구들에서 살펴본 가사내용에는 육아와 관련된 문항도 포함되어 있다. 이를 감안했을 때, 본 연구의 경우, 가사참가내용 가운데 육아와 관련한 문항은 제외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의한 관계성이 나타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정내수요가설에 관한 또 다른 변수인 막내자녀나이가 한국 데이터의 경우, 지연가능가사와 지연불능가사 모두에, 일본 데이터의 경우, 지연가능가사에 유의한 관련성을 나타냈다. 즉, 막내자녀나이가 많을수록 남성의 가사참가 빈도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중국 데이터에서는 두 변수간 관련성이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막내자녀가 어릴수록, 남성의 가사참가빈도가 높아진다고 보고하고 있다(Cho와 Im, 1997; Ishii-Kuntz, 1998; Matsuda, 2006; Nishioka, 1998). 본 연구에서도 한국과 일본 데이터가 이 가설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국 데이터의 경우, 이 가설이 지지되지 않았는데 이는 막내자녀가 어려도 자녀가 한명인 세대가 많다는 점에서 부부간 가사역할분담에 대한 필요성을 낮게 느낄 가능성이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상대적자원가설에 관련한 변수로 부부의 연령차, 학력차, 수입차를 모형에 투입하였

다. 그 결과, 연령차는 어느 쪽도 유의하지 않았고, 학력차에 있어서는 한국 데이터에서 지연불능가사와 유의한 관련성을 나타냈다. 또한 수입차에 있어서는 중국 데이터에서 지연가능가사와 유의한 관련성을 나타냈고, 일본 데이터에서 지연가능가사와 지연불능가사 모두에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자원가설은 Blood 등(1960)의 자원이론을 가사분담에 적용시킨 것으로, 자원이론은 사회경제적 또는 물질적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는 쪽이 보다 많은 권력을 가지게 된다는 이론이다. 가사분담에 관한 기존의 연구에서도 자원을 적게 보유하고 있는 쪽이 많이 보유하고 있는 쪽보다 가사를 더 많이 분담하게 된다고 보고하고 있다(Yoshinori, 1988). 본 연구에서도 상대적자원가설이 지지되었다는 점에서 부부간 권력관계가 남성의 가사참가 빈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라는 점이 시사되었다.

마지막으로 시간적여유가설에 관련된 변수로 남성의 귀가시간과 부인의 직업유무를 모형에 투입하였다. 그 결과, 한국 데이터에서만 이 두 변수가 지연가능가사와 지연불능가사 양쪽 모두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성의 귀가시간이 늦을수록 가사참가빈도가 낮고, 부인이 직업을 가지고 있는 세대의 남성이 가사참가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연구들이 남성의 노동시간이 증가하면 가사노동에 대한 참가시간이 감소한다고 보고하고 있다(Cho와 Im, 1997; Coverman, 1985; Shelton, 1990). 그러나 부인의 취업상태와 남성의 가사참가의 관계에 대해서는 그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다(Shelton, 1990; Barnett과 Baruch, 1987). 따라서 부인의 취업상태와 남성의 가사참가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추후에도 계속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요약 및 제언

이상과 같이 한국, 중국, 일본의 남성을 대상으로 남성의 가사참가에 관해 사회학 영역에서 제시하고 있는 5가지 가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한국에서는 가

정내수요가설, 상대적자원가설, 대체자원가설, 시간적 여유가설, 이데올로기가설 등 5가지 가설이 지지되었고, 중국에서는 상대적자원가설, 대체자원가설, 이데올로기가설 등 3가지 가설이 지지되었다. 또한 일본에서는 가정내수요가설, 상대적자원가설, 대체자원가설, 이데올로기 가설의 4가지 가설을 지지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한편, 3개국 모두 대체자원가설과 이데올로기 가설에 관련한 변수가 남성의 가사참가에 유의한 관련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성의 가사참가에는 이러한 공통점 뿐만 아니라 3개국 각각 다른 사회적, 문화적 배경에 따라 차이점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더불어 남성의 가사참가에는 복수의 가설이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다중요인에 의해 남성의 가사참가에 대한 빈도가 결정된다는 것이 시사되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보호자만을 조사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선택 바이어스의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 더불어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추후 연구과제를 제언하면, 지금까지 언급되어 온 5가지 가설 간의 인과관계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남성의 가사참가가 가정내수요가설에서 출발하여 대체자원가설 및 시간적 여유가설을 통해 촉진 또는 저해되는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나아가 본 연구에서 투입한 변수 이외에 각 가설의 의미를 반영하고 있는 다른 변수를 투입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검증들이 축적된다면 한국, 중국, 일본의 일과 생활의 양립을 위해 필요한 지원책들의 기초자료들이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All-China Women's Federation · National Bureau of Statistic. The Second China women society position survey. Collection of Women's Studies. 2001
- An HS, Kim KS. A Comparative Study on the Quality of Life of Korean and Chinese Women Who Are Employed and Married.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009;27(1):127-144
- Aoki S, Iwatate K. Determinants of paternal involvement in childcare; the analysis of differences between mother's and father's belief. Bulletin of Tokyo Gakugei University. Section 1, Science of education 2005;56:79-85
- Barnett RC, Baruch GK. Determinants of fathers' participation in family work.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1987;49:29-40
- Cho MW, Im JB. The husbands' participation in the household labor.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1997;15(4):369-386
- Coverman S. Explaining husbands' participation in domestic labor. Sociological Quarterly 1985;26:81-97
- Greenstein TN. Husbands' participation in domestic labor: Interactive effects of wives' and husbands' gender ideologi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1996;58:585-595
- In H. The history and the present of the campaign of Women Back Home in China - From the viewpoint of Women's double burden-. F-GENS Journal 2004;2:13-20
- Ishii-Kuntz M. Gender and family research in contemporary America. The Study of social relations 1997;3(1):105-127
- Ishii-Kuntz M. The Trend of Father Study on America. Japanese journal of family sociology 1998;10(2):135-141
- Ishii-Kuntz M. Male's childcare Participation of men in two-earner family. Structure and Change in Contemporary Japanese Families: Quantitative Analyses of National Family Research (NFRJ98), WATANABE Hideki, INABA Akihide, NISHINO Michiko, University of Tokyo Press, 2004:201-214
- Ishii-Kuntz M. Role of the father and childcare participation. Japanese journal of research on household economics 2009;81:16-23
- Iwai N, Inaba A. Husband participating in housework, the husband who do not participate. Moriyama K. Japanese hierarchy system(4)-gender · market · family. University of Tokyo Press 2000:193-215
- Matsuda S. Housework and childcare participation of Fathers and Changes in the determinants of the level of participation of the father in recent years. Research on Household Economics 2006;71:45-54

- Morita C, Muramatsu Y. Division of Household Labor and Child Care in Married Couples and Wives' Emotion : an Analysis of Couples with Less Sharing Husbands. *Bulletin of Tokyo Gakugei University. Series III, Social sciences* 2004;55:111–122
- Mungas D, Reed BR, Marshall SC, González HM. Development of psychometrically matched English and Spanish language neuropsychological tests for older persons. *Neuropsychology* 2000;14(2): 209–223
- National Institute of Population and Social Security Research, The Second National Survey on Family in Japan. 2000
- National Institute of Population and Social Security Research, The Third National Survey on Family in Japan. 2006
- Nishioka H. Men's Domestic Role and the Gender System– Determinants of Husband's Household Labor in Japan–. *Journal of Population Problems* 1998;54(3):56–71
- Peek MK.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d Rehabilitation Research. *American Journal of Physical Medicine and Rehabilitation* 2000;79(3):301–309
- Shelton BA. The distribution of household tasks: Does wife's employment status make a difference?. *Journal of Family Issues* 1990;11:115–135
- Shelton BA, John D. The Division of Household Labor. *Annual Review of Sociology* 1996;22:299–322
- Statistics Korea. Time use survey. 2009
- Tsuya N. Operation and housework judging from gender–Comparison of Japan, Korea and America–. *Journal of population problems* 2000;56(2):25–48
- Yamamoto K, Onodera T.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and case analysis.. Nakanishiya 2001
- Yoon JS, Park JS, Jin J, Oh JH, Nakaijima K. The Substantial Examination of the Hypothesis related to Promotion and a Disincentive of the Father's Household Participation. *Social Science Review* 2010;90:1–16
- Yoshino R. The East Asia Value Survey –For the development of Behaviormetric Study of Civilization on the Cultural Manifold Analysis (CULMAN), The Japanese journal of behaviormetrics 2005;32(2):133–146
- Yoshinori K. Determinants of household division of labor–resources, power, and ideology–. *Journal of family issues* 1988;9(2):177–200